

쇠퇴해가던 저널리즘 스쿨의 혁신 실험, 어떻게 성공했나 애리조나주립대 크롱카이트 저널리즘 스쿨 사례

문영은

애리조나주립대 크롱카이트 저널리즘 스쿨
News Co/Lab랩 박사후 연구원

과도처럼 밀려온 디지털 혁신에 미국 미디어 기업들은 언론사 규모와 상관없이 AI 저널리즘,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제작 기법을 도입한 기사 작성, 과감한 독자 참여모델 및 인스타그램 스토리텔링 등 디지털 시대에 적극 대응하며 돌파구를 찾고 있다. 비즈니스 모델과 생산 관행을 재디자인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민에 빠진 것은 비단 언론사뿐만이 아니다. 미국의 저널리즘 스쿨 역시 21세기 미래 기자에 걸맞은 교육을 제공하고자 고군분투 중이다. 이번 호에서는 약 20년 전 쇠퇴해가던 남서부의 작은 저널리즘 스쿨이 어떻게 미국 전역에서 가장 혁신적인 저널리즘 스쿨로 평가받게 됐는지 그 혁신 실험 궤적을 돌아보고자 한다. 실제로 이 학교는 단순히 저널리즘 교육을 바꾸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이 과정에서 저널리즘 자체를 바꾸는 것을 꿈꾸고 있다고 말한다.

실험의 시작: 대학병원 모델식(Teaching Hospital) 저널리즘 교육

애리조나주립대 월터 크롱카이트 저널리즘 스쿨은 1984년부터 월터 크롱카이트의 상징적인 이름과 가치를 본받아 전문적인 저널리즘 교육을 위한 견고한 기반을 구축해 왔다. 실무 중심의 커리큘럼을 만들고 크롱카이트의 이름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거듭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 주요 저널리즘 프로그램에 이름을 올리는데 실패했다(Callahan, 2015, 8, 17). 특히 1999년 당시 학장이던 더그 앤더슨 학장이 학교를 떠나면서, 민간영역의 기부금은 물론, 17년 전 6년에 한 번 꼴로 실시하는 국가의 대학 보조금과 인허가에서마저 탈락할 위기의 공포감에 휩싸였다. 미디어 환경의 격변과 함께 편집국 축소 등으로 산업 전반 자체가 고전을 면치 못한 것도 주요한 이유로 작용했다. 이와 맞물려 민간센터로부터의 기부도 거의 받지 못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마이클 크로우 총장은 인터넷 기반의 디지털 생태계가 뉴스의 생산과 배포 체제를 혁명적으로 흔들어대던 2000년 초반, 교수진 20명 남짓의 쇠퇴해가는 이 작은 저널리즘 스쿨의 가능성을 봤다. 크로우 총장은 상대적으로 외곽에 위치한 템피시에 있던 저널리즘 스쿨을 새롭게 구상된 피닉스 캠퍼스의 중심지로 옮기는 시도를 감행했다. 또한 과거에는 저널리즘 스쿨과 특정한 연결고리가 거의 없었던 애리조나 PBS 방송국을 과감하게 인수해 새로 이사한 피닉스 건물에 입주시켰다. 이러한 시도가 시작된 것이 약 15년 전이다.

〈사진 1〉 애리조나주 피닉스 도심에 위치한 크롱카이트 저널리즘 스쿨 전경¹⁾



1) 1~4층은 교실로, 5층은 Arizona PBS사가 쓰고 있다. 건물 2층에는 크롱카이트 갤러리가 있다. 케네디 암살사건 당시 신문들과 매스 미디어의 발달을 한눈에 볼수 있는 카메라, 인쇄프레스 등이 전시돼 있다.

2022년 현재 애리조나 PBS사는 저널리즘 스쿨이 운영하는 미디어 매체로는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게 됐으며 애리조나주의 각종 굵직한 정치토론, 예를 들어 주지사 TV토론을 주관하기도 하고²⁾ 100만 명 이상의 시청자를 보유한 미국 최대 공중파 방송국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크로우 총장과 비슷한 시기 크롱카이트 스쿨에 부임한 크리스토퍼 캘러한 학장은 월터 크롱카이트의 “미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사람”이라는 유산을 기반으로, 전통적인 저널리즘의 ‘크롱카이트 가치’를 그대로 가져가는 동시에, 디지털 시대의 혁신적이고 기업가적인 사고방식을 대담하게 수용하는 것을 학교 교육의 목표로 삼았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캘러한 학장이 취임 후 가장 공들였던 일은 일류 교수진의 확보였다. 단순히 애리조나 지역에서 이름있는 기자가 아니라, 전국 언론계 인사들, 예를 들어, 워싱턴포스트의 전 편집장 레너드 다우니 주니어, 뉴욕타임즈의 전 데이터 편집장 사라 코헨, 유명한 보스턴글로브 ‘스포트라이트’ 팀의 전 편집장 월터 V. 로빈슨 등을 영입했다.

실제 크롱카이트 스쿨의 전체 교수회의에는 PBS사의 직원들도 전체가 참여해 아젠다를 공유한다. 피닉스 크롱카이트 건물의 1층부터 4층까지가 교실로 쓰이고, 5층은 PBS사가 쓰고 있다. 이외에도 애리조나 방송인 연합(Arizona Broadcasters’ Association)과 같은 기자전문단체에 공간을 임대하기도 했다. 자연스럽게 긴밀한 파트너십을 토대로 크롱카이트 학생들 PBS사에서 인턴십이나 각종 프로그램을 이수할 기회가 많다. 이러한 학풍 덕분에 최고 수준의 시설을 사용하며 일찌감치 실무감각을 익히는 것은 물론, 한 가지 매체에만 집중하도록 하는 전통적인 교육방식은 지양되고 있다. 대신 학생들이 플랫폼을 막론하고 자유롭게 소재에 적합한 뉴스 포맷을 익힐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특징이다. 실제로 신입생부터 듣게 되는 멀티미디어 저널리즘 과목에서는 팟캐스트, Storify, 라이브 트위터로 속보 전하기 과제, 인터랙티브 그래픽 구성하기 등의 과제가 포함된다.

이처럼 캘러한 학장은 전국의 주요 뉴스 기관들과 수십 개의 전문적인 파트너십과 제휴를 발전시켜 몰입형 전문 프로그램을 학교의 트레이드 마크로 만들었다. 로스앤젤레스와 워싱턴 DC에 지국을 둔 크롱카이트 뉴스(Cronkite News) 운영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크롱카이트 뉴스 운영을 통해 저널리즘 전공 학생들에게 집중적인 전문 보도 경험을 제공하는데, 학생들은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에서 한 학기를 보내며 기자로서의 삶을 경험하게 된다. 백악관에서 세 블록 떨어진 곳에 위치한 워싱턴 지국은 새로운 법안의 입법 과정, 각종 시위, 대통령의 발표 등 애리조나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뉴스와 관련된 소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의회에서부터 대법원까지 취재한다. 대통령실이나 국회와 같은 주요 출입처를 학생들이

2) 클린 일렉션과 애리조나 PBS에서는 각 선출직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해 왔으나, 2022년 주지사 선거에서는 민주당 주지사 후보 케이티 홉스가 공식적으로 참여를 거부해 TV토론이 무산됐다.



직접 기자로 취재하는 것은 한국 실정을 기준으로 볼 때는 파격적인 부분이다. 크롱카이트 스쿨 학생들은 디지털, 인쇄, 방송플랫폼을 넘나들며 속보를 다루고 크롱카이트 뉴스에서 발행되는 탐사기사를 작성한다.

이렇게 크롱카이트 스쿨이 적극적으로 표방하는 모델은 ‘Teaching Hospital’, 대학병원식 교육 모델로 불린다. 미국 저널리즘 교육에서 자주 쓰이는 이 메타포는 학생들이 직접 체험해야 배운다는 생각에서 나왔다. 즉, 의과대학 학생들이 의사들의 지도 아래 채혈하는 법, 카테터 삽입하는 법을 직접 환자와 대면해 배우는 것처럼, 실전에서 기자로 활동해야 비로소 깨우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대학병원은 환자를 치료하기도 하지만, 미래를 위한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고 시험되는 곳이기도 하다. 즉, 대학병원이 연구 중심으로 새로운 의학 기술(ex. 소아마비 백신, 심장 이식프로토콜 등)이 개발되고 실험돼, 일반 병원보다 중증 환자의 생존율이 높은 것처럼, 저널리즘 스쿨 역시 기존 미디어에서 쉽사리 시도하기 어려웠던 혁신적 방법을 시도하며 더 나은 저널리즘을 추구하겠다는 뜻이다.

또한 교육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학교는 지난 10년 동안 많은 커리큘럼에 새로운 기술들을 도입했다. 전통적 가치관인 미디어 윤리와 다양성의 가치, 미디어법과 비즈니스, 기본적 저널리즘 보도, 글쓰기, 편집, 제작 기술의 교육은 여전히 교육과정의 핵심으로 남아 있는 동시에 교육 과정은 매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새로운 과정이 추가된다. 크롱카이트 스쿨은 모든 세부 전공을 막론하고 코딩 과정을 이수하도록 요구하는 미국 최초의 저널

리즘 스쿨 중 하나로 불리는데, 2016년부터 1학점의 코딩 수업이 의무화되었다. 비록 모든 저널리스트가 코딩을 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기본적으로 미디어 산업에 종사하려면 기초적인 수준의 코딩 문해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미디어 기술자들과도 뉴스 생산품의 기술적 측면에 대해 문제 없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코딩 과정은 기본 HTML, 자바스크립트, CSS, 인터넷과 프로그래밍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와 함께 웹사이트 스타일링도 함께 가르친다.

혁신과 저널리즘 교육의 결합: 저널리즘 스쿨은 최신 뉴스 기술의 실험대

대학병원이 새로운 치료법의 실험과 연구가 진행되는 것처럼, “기자가 어떻게 증강현실을 이용해 보다 더 독자 친화적인 뉴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날씨 앱을 활용해 사용자의 부엌에 눈이 쌓이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뉴스를 전달할 수 있을까?”와 같은 상상력이 크롱카이트 스쿨 수업에서는 현실이 된다. 뉴미디어 혁신 및 기업가정신 랩(The New Media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Lab)에서는 학생들이 이러한 기술을 실제로 사용해 새로운 형태의 스타트업을 구축하는 방법을 배운다. 수업시간에 뉴스 봇(bot)을 만들고, 증강현실 날씨 앱을 개발하는 것은 그리 낮은 일이 아니다. 또한, 마약 중독의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게임 형태의 시뮬레이션 기사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 실제로 이들은 학위를 받기도 전에 수익을 내는 가상현실 회사를 창업하기도 했는데, 모두 합치면 50개 이상의 게임, 앱, 시뮬레이션을 만들었고, 스타트업 자금으로 15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크롱카이트 스쿨이 피닉스로 거점을 옮기며 혁신적인 시도를 할 즈음 합류했던 워싱턴포스트지의 기자이자 게임 디자인 회사 Playable Media의 설립자인 레타 힐(Retha Hill) 교수가 이 과목을 가르친다. 힐 교수는 증강현실을 이용해 극심한 기후변화를 독자에게 생생하게 전달한 프로젝트로 2019년 전미 방송인 협회의 상을 수상한 미디어 기술 분야의 잔뼈 굵은 전문가다.

이뿐만이 아니다. 구글 뉴스랩과 협력하여 언론학과 학생들이 새로운 도구를 공개하기 전에 테스트하는 것을 도울 수 있도록 한다. 혁신 기법(Innovation Tools)이라는 수업을 가르치고 있는 에릭 뉴턴(Eric Newton) 교수는, 구글 뉴스랩 매니저인 니콜라스 휘태커(Nicholas Whitaker)를 연사로 초대했는데, 휘태커는 화면에 사람의 얼굴을 한 로봇 형태로 등장해, 교실을 빙빙 돌며 학생들과 이야기했다.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구글 뉴스는 현재 개발 중인 로봇을 시연해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크롱카이트 학생들은 로봇의 어떤 도구가 이용하기 불편한지 독자 입장에서 개선점을 이야기했다. 뉴턴 교수는 “구글 뉴스랩의 아이디어 일부를 새로운 콘텐츠를 출시하기 전에 시연해, 기자이자 독자인 학생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구글 뉴스랩과 저널리즘 스쿨 간 윈윈 전략인 셈이다. 뉴턴 교



수는 저널리즘 스쿨 입장에서는 새로운 도구와 기술을 빠르게 도입할 수 있어야 한다며, 실제 뉴스룸이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24시간 7일 매일 돌아가는 뉴스 주기를 따라가기 어렵기 때문에 학교가 이러한 기술을 도입하는 데 거리낌이 없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학교는 복잡다단하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과 사회의 요구를 신속하게 교육과정에 반영하고자 지난 6년간 100%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는 학위 과정을 포함해 4개의 학위 과정을 신설했다. 복수 학위 과정으로는 현재 시행 중인 공학(그래픽 정보 기술), 지리학(기상학)의 학부 학위가 포함된다. 경영대학원과 함께 마케팅(홍보학을 공부하는 크롱카이트 학생들을 위한)과 금융(비즈니스 저널리즘에 초점을 맞춘 학생들을 위한) 학위를 위한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현재 지속가능성 대학원(지속가능성 석사)과 법대(법학 석사)와 복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매달 교수진 회의에서는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디지털 중심의 커리큘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현업 전문가들과 학생, 교수 집단의 철저한 평가에 의해 주도되며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핵심적 능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 피드백을 받고, 이를 교육과정에 빠르게 도입하는 것도 특징이다. 이러한 실험 끝에 애리조나주립대는 10여년 전부터 각종 대학 순위 발표에서 저널리즘 스쿨 전국 순위 상위권을 차지하며 ‘떠오르는 강자’로 부상했고, 이에 힘입어 더욱 적극적인 투자로 전국적 단위의 업계 리더들을 공격적으로 채용하고 있다. 또한, 교수진들로 하여금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게 하여 외부 기금 모금을 독려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결과물로도 새로운 수익 창출을 모색하고 있다. 미디어 산업과의 파트너십 및 새로운 온라인 학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유연한 기금 모델로 학교는 6년 만에 예산을 약



50% 증가시켰다. 뿐만 아니라, 이를 다시 새로운 실험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확장시키고 있다.

뉴스룸 다양성과 글로벌화를 위한 진일보

크롱카이트 스쿨이 이러한 기술적 혁신과 현업과의 접목 외에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분야는 다양성과 글로벌화다. 두 개의 이슈를 미디어 업계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³⁾ 이처럼 산업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세대의 다인종 학생들을 업계로 내보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 멕시코와 접경지역으로 히스패닉 인구가 많은 애리조나주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히스패닉 저널리스트 연합 등과 함께 학생들의 뉴스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학생 커뮤니티의 인종적 다양성은 40%, 교수진의 다양성은 30%로 증가해 이러한 노력이 단순히 선언적인 차원에만 머무르지 않다는 것을 재확인시켰다. 9월부터는 DPI(Diversity Pledge Institute)와 협력하여 저널리즘 및 전략 커뮤니케이션 산업 전반에 걸쳐 다양성, 공정성, 포용성(DEI) 가치에 한 발짝 더 다가가기 위한 일련의 이니셔티브를 시작했다. 이 협업을 통해 학생들이 이러한 가치들을 어떤 기준으로 콘텐츠에 구현할지 깊이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일주일간 부트캠프를 시행할

3) 실제로 나이트재단의 후원으로 이루어진 미국 뉴스 편집자 협회 연례 뉴스룸 다양성 조사에서 유색인종 기자는 16.5%에 그쳤다.

예정이다. 이렇게 미디어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위한 커리큘럼에 대해 조언하고 다양성, 형평성을 강조하는 과정을 개발해 다른 저널리즘 스쿨에도 선보일 계획을 가지고 있다.

단순 미국 내 다양성 뿐만이 아니라, 국제화 역시 스쿨이 '#CronkiteGlobal'이라는 기치 아래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분야다. 일례로 홍콩의 외신기자클럽(FCC)이 처음부터 조직한 언론인권상(Human Rights Press Awards)을 넘겨받아 2023년부터는 스쿨이 직접 시상을 주관하기로 했다. 현재 학장을 맡고 있는 배티노 배츠(Battinto L. Batts)는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언론의 자유에 대한 많은 위협이 있는 이 시점에 크롱카이트 스쿨이 이 상을 주관함으로써 학교의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알릴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내비쳤다. 이외에도 세계 각국의 기자들을 초청하는 험프리 펠로우십, SUSI(Study of the United States Institutes for Global Scholars) 펠로우십 등의 주관학교로 연수형식의 교육과 네트워킹을 주관하기도 한다. 또한, 크롱카이트 뉴스의 국경 보도팀(The Cronkite News Borderlands reporting team)은 애리조나주 전역의 이민자 및 원주민 문제를 다루며, 라틴 커뮤니티의 다양한 문화, 국경 지역의 산 페드로 강에 대한 위협, 애리조나 국경 지역 이민자들에 대한 뉴스를 영어와 스페인어로 동시에 보도하는 과정도 진행중이다. 이처럼, 다양성은 단순한 슬로건을 넘어 디지털 환경에서 다인종, 다민족 독자를 대상으로 접근해 글로벌 독자의 마음을 사로잡겠다는 야심찬 계획의 일환이기도 하다.

미래 저널리즘의 실험장으로서의 저널리즘 교육 기관

한국에서는 기존의 이화여대 윤세영 저널리즘 스쿨 및 세명대 저널리즘 스쿨, MBC와 조선일보 등 언론사 주도의 저널리즘 교육기관이 기자가 되려는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다. 급변한 미디어 환경과 누구나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시대에 전문화된 트레이닝을 통해 차별성을 갖춘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이 늘어나는 일은 반가운 소식이다. 크롱카이트 사례는 저널리즘 교육기관이 단순히 전문화된 트레이닝 교육을 넘어 미래 저널리즘의 실험장으로 혁신을 주도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 🌐

참고 문헌

Callahan, C. (2015, 8, 7). How ASU became the gold standard in journalism. AZ Central. URL: <https://www.azcentral.com/story/opinion/op-ed/2015/08/07/asu-cronkite-journalism/31248885/>